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에서 AI교육 특성변수가 심리적 자본과 플로워에 미치는 영향

이신남
협성대학교 세무회계학과

An Influe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Education Characteristics on the Psychological Capital and Flow in Digital Convergence Society

Shin-Nam Lee

Dept. of Tax & Accounting, Hyups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에서 AI교육 특성변수들과 심리적 자본, 심리적 자본과 플로워의 관련성, AI 교육 특성변수와 플로워사이에 심리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I 교육의 특성변수에는 정확성, 유용성, 사용 용이성이 있다. 실증분석은 수도권 대학 중 회계정보를 강의하는 3개 대학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 28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 22.0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매개변수에 대한 분석으로 계층적 회귀분석의 3단계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I교육 특성변수는 심리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교육 특성변수 중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둘째, 심리적 자본은 플로워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AI교육 특성변수와 플로워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심리적 자본 매개효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심리적 자본은 AI 특성변수와 플로워사이에 주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AI교육 특성변수와 플로워의 관계에서 심리적 자본이 매개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 복원력, 희망, 낙관주의와 같은 행동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제어 : 디지털 융복합 사회, AI교육 특성변수, 정확성, 심리적 자본, 플로워,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AI education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capital, psychological capital and flow, AI characteristics and flow through medit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digital convergence society. There are three AI characteristics: correctness, usefulness, easy of use. This empirical study was examined by 282 questionnaires to the three universities that teach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It was performed by three-step method of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rameter using the SPSS 22.0.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by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I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capital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From AI attribute, correctness was established as the most important element. Second, psychological capital positively(+) influences flow. It allowed for the developed in flow. Third, psychological capital was shown as the major meditative variable between AI characteristics and flow. Through these, this paper suggests to reinforce self-efficacy, hope, resilience, optimism.

Key Words : Digital convergence society, AI characteristics, Correctness, Psychological capital, Flow, Meditating effect

Received 31 December 2015, Revised 11 March 2016
Accepted 20 April 2016, Published 28 April 2016
Corresponding Author: Shin-Nam Lee(Hyupsung University)
Email: lsn119@paran.com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는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화의 기틀이 구축되면서 커뮤니티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의 기술이나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1,22,23].

디지털 기술은 조작기능, 정보기능, 전력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정보기능에는 형식적 정보기능과 실질적 정보기능이 있다[1,2]. 회계정보는 실질적 정보기능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처리하며 평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컴퓨터나 인터넷 등에 대한 기기의 공포나 낮은 효율성 등의 심리적요소가 디지털 활용 유형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심리적 요소가 플로위에 대한 동기를 가지게 한다고 하였다[2,24,25].

정보화시대에 기업은 IT지식을 기초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경영이나 회계학 분야에서도 정보기술이 포함된 정보시스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3].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존 회계담당자들이 수행하던 회계업무를 회계 소프트웨어가 대신함에 따라 전통적인 회계가 제공하던 서비스의 수요가 감소하였다. 회계학 교육현장에서도 다양한 회계 소프트웨어의 사용법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실무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정보의 데이터베이스 및 회계솔루션 등 고급 정보기술도 제공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회계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4,5,29].

심리적 자본(psychological capital)은 개인의 심리를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 심리상태를 말한다. 심리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등 자본개념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등장하였으며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희망(hope), 복원력(resilience), 낙관주의(optimism)를 통합된 심리적 차원인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다[6,30,33]. 기존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자본이 종업원 고용이나 이직의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대부분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플로우는 학습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으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술과 정보 서비스가 융합된 디지털 사회에서 AI(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특성변수가 심리적 요인들이 통합되어 상호작용을 통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상승시킨다는 심리적 자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심리적 자본이 플로위에 미치는 영향과 AI교육 특성변수와 플로위사이에서 심리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회계분야에 있어서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과 연구가설

2.1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

(Digital Convergence Society)

Kahne and Sporte(2008)는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는 정보시대의 지식과 정보를 포함하여 융복합된 디지털화(digitalizing)를 이룬 사회이며, 디지털화는 사람의 인지 체계변화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에서는 다양성과 융복합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산업이 발전할 것이며, 제조 또는 서비스보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로의 변화를 통하여 정보의 대중화가 실현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사람들을 디지털기에 익숙하게 해주었으며 디지털기를 이해하고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7]. Nelson(2009)은 융복합 디지털화는 삶에 있어서 심리적 체계의 변화를 야기한다고 하였다. 디지털 컨버전스는 인간의 뇌에서 이루어지던 기능 중의 일부가 인간의 능력보다 우위에 있기 시작하면서 교육에 있어서도 인간의 사고능력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다양한 연산구조의 해결과 정보처리를 대신해 주고 있다. 디지털 컨버전스 확산은 새로운 시장 기회를 가져올 뿐 아니라 산업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의 학습자는 자신과 자기사회에 대한 지식을 비판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하며,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의 생활방식을 자신에 맞는 방법으로 정착시키고,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다[8,26].

김동섭(2010)은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의 통합, 다양한 서비스와 기기의 융복합, 기업간의 융복합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하였다. 디지털 컨버전스는 여러 기술이나 성능이 하나로 융합되는 일이며, 사회적 관점에서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이동형 통신망이 결합되어 탄생한 미디어환경이라고 하였다[23,27].

2.2 AI(Accounting Information)교육과 심리적 자본

AI 관련 수업은 회계이론과 전산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무지향적인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손혁과 박성진(2011)은 기업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실무중심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9,28].

Rho Ryeo(2011)의 연구에서 AI는 회계거래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회계순환과정에 의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재무보고서를 자동으로 출력하는 시스템이라고 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회계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스템을 비교, 평가하여 다른 시스템과의 유연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 용이성, 정확성이라는 특성변수가 종속변수인 성과변수로 심리적 자본인 이용자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1,22,23].

Venkatesh와 Davis(2000)는 정보기술수용 모형자체보다는 인지된 유용성을 강조하였으며 외부변수의 영향을 중요시하였다. 자료를 입력, 처리, 출력하여 외부의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인지적 유용성은 심리적 자본에 매우 유용한 측정도구임이 입증하였다[10]. Bedard et al.(2012)은 인지된 사용 용이성과 인지된 사용시스템 유용성이 심리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심리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자기효능감에 정의(+)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처리기술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AI는 기업의 내부 또는 외부정보이용자에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11,27].

Luthans(2002)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를 통합된 심리적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설명하였으며, 희망은 과업을 성공하려는 의지이며, 복원력은 실패나 책임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는 성향이

며, 낙관주의는 긍정적인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연구결과, 자기목표 설정과 열망을 가지고 접근하는 행동 및 정신적 과정에 대한 활동이 심리적 자본 중 자기효능감 증진에 영향을 미치며,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방향설정이 심리적 자본인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복원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9,12,21].

우수한 AI의 산출과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사용하기 쉬운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개인의 특정 AI 사용은 성과향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AI교육 특성변수를 대학생에 위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정보 복원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3,14].

선행연구에서는 심리적 자본 중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심리적 자본의 4가지 요소(자기효능감, 희망, 회복력, 낙관주의)로 확장하여 회계정보교육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에 대한 수집과 이용이 기술수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주변 사람들의 심리적 자본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토대로 회계정보의 하위속성인 정확성과 유용성, 사용 용이성이 심리적 자본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회계정보의 정확성은 심리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 2>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심리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 2> 회계정보의 사용 용이성은 심리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3 심리적 자본과 플로워

Abuhamdeh와 Csikszentmihai(2012)의 연구에서는 자신이 관심이 있는 대상에 몰입하여 즐기는 긍정적인 상태인 플로워를 종속변수로 하여 심리적 자본이 플로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이 결정하는 학습에 대한 내적인 동기와 학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요인에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하였다[15,26].

사회심리학자인 Bandura(2004)에 따르면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기대가 신념

에 영향을 주며 그것은 플로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플로워는 학업이나 직무에 대한 애착과 중요성으로 정의되며, 도전, 즐거움, 주의집중 등으로 구성된다. 대학생들의 심리적 자본이 높을수록 플로워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자본 중 학업에 대한 낙관주의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플로워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개인의 기술수준이 학습과 균형을 이룰 때 즐거움과 주의집중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환경에서 주요한 경험은 개인의 심리적 인식에 따른 반응으로 측정도구의 사용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고 하였다[16,17,18]. 컴퓨터를 매개로한 커뮤니케이션에서 심리적 자본은 플로워에 영향을 미친다는 Funk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도전감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생의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특정 과업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플로워에 대한 도전감을 향상시키며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과업에서 성과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실제로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학습내용에 대하여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어 플로워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30,32,34].

따라서 위와 같은 선행논문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4> 심리적 자본은 플로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4 AI와 플로워의 관계에서 심리적 자본의 매개효과

Luthans(2002), Funk et al.(2003)의 연구를 보면, 리더십과 플로워 사이에 심리적 자본이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자본이 매개변수로 종속변수인 스트레스, 이직의도, 구직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12,30]. 또한 Luthans et al.(2008)은 심리적 자본을 매개변수로 조직풍토가 성과와 직무만족, 플로워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를 하였다[19,23]. 이외에도 Warumbwa et al.(2011)은 은행직원을 대상으로 리더십이 집단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심리적 자본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21,22].

이와 같이 심리적 자본을 매개로 한 여러 선행연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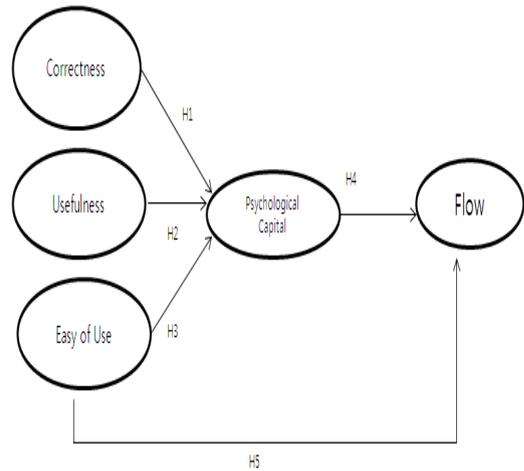
기초로 독립변수인 회계정보특성과 종속변수인 플로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심리적 자본은 AI와 플로워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 실증적 연구방법

3.1 연구모델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에서 AI교육 특성변수인 정확성, 유용성, 사용 용이성이 심리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자본이 플로워에 미치는 영향, AI교육 특성변수와 플로워의 관계에서 심리적 자본의 매개역할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래의 [Fig. 1]과 같은 연구모델을 수립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2 변수측정

Venkatesh와 Davis(2000)는 기존의 기술수용모델에서 태도를 제외하고 인지된 유용성과 편리성이 사용자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Rho Ryeo(2011)는 AIS의 정보특성변수로 정보의 정확성, 적시성, 유용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시스템특성변수로 사용 용이성, 유연성, 신뢰성이라는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개인적 특성으로는 개인의 컴퓨터 활용능력, 개인의 참여도,

개인의 혁신성을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10,11,31,33].

Luthans(2002), Luthans et al.(2005), Warumbwa et al.(2011)에 의하면 자기효능감, 복원력, 희망, 낙관주의를 통합하여 하나의 심리적 차원으로 보고 통합된 심리적 차원이 높은 상호작용과 설명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맡은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지자원, 동기부여, 행동에 투여되는 자신감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다. 복원력은 어떤 사건의 책임감이 나 갈등, 실패로부터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려는 힘이다. 희망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려는 동기나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로 정의된다. 낙관주의는 주어진 상황이 긍정적인 경우에는 원인이 내재적이고 영구적이며, 지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이 부정적인 경우에는 원인이 외부적이며, 일시적이고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태도라고 생각한 다[12,19,21]. Bandura(2004), Funk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플로위를 도전, 즐거움, 주의집중으로 구성하여 잠재적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상태로 학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과업에 대한 성취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6,32].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문향을 참고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문향으로 재구성하여 설정하고, 5점 리커드 척도로 측정하였다. <Table 1>은 설문지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3.3 조사방법 및 표본특성

본 연구에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5년 10월 2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수도권 대학 중 회계정보를 강의하는 3개 대학에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86부를 회수하였으나 이 중 답변이 불성실한 4부를 제외한 28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 22.0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매개 변수에 대한 분석으로 계층적 회귀분석의 3단계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20].

<Table 1> Questionnaire of Study

Variables	Questions	Reference
Correctness (3), Usefulness (3), Easy of Use(4)	The information is trustable. The information is frank. The information is accurate. The information is useful. The information is valuable. The information is help me to make a decision. The information is precise. The information is familiar. I understand the program. The information in the learning helps me.	Venkatesh and Davis(2000), Rho Ryeo(2011), Bedard et al.(2012)
Psychological Capital (12)	I can handle things in order. I do things correctly. I pursue the goal. I know the various resolutions. I can successfully perform a task. I can achieve this goal. I am optimistic. I have a positive impact on business promotion. I developed a plan to overcome the crisis. I like the challenge. I keep trying. I have the ability to cope.	Luthans(2002), Luthans et al.(2005), Warumbwa et al.(2011)
Flow (16)	I understand the learning content. I have a goal of the study. I have to study properly. I focus when studying. I like to study. I will continue to study. I stud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When I study I don't care others. I can do the difficult task. When I studied, time passed quickly. No matter what the result I entrust it. I know what to do. I enjoy the process of learning. I am happy while studying. I am comfortable while studying. I can easily new tasks.	Bandura(2004), Funk et al(2003)

4. 실증적 분석결과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연구를 위하여 배포한 설문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124명으로 44%, 여성이 158명으로 56%로 나타났다. 학

년은 3학년이 90명으로 31.9%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학년 68명(24.1%), 2학년 66명(23.4%), 4학년 58명(20.6%) 순으로 참여하였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

Classification		frequency	%
Gender	male	124	44
	female	158	56
School Year	1st year	68	24.1
	2nd year	66	23.4
	3rd year	90	31.9
	4th year	58	20.6

4.2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유의성이 확보되었는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플로워와 AI의 3개 요인간 상관계수는 정확성 0.202, 유용성 0.163, 사용 용이성 0.222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또한 심리적 자본과 플로워의 상관계수는 0.229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값이 0.8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8].

<Table 3> Correlation of Measured Items(N=382)

Variables	1	2	3	4	5
1. Correctness	1				
2. Usefulness	0.702**	1			
3. Easy of Use	0.704**	0.773**	1		
4. Psychological Capital	0.778**	0.716**	0.738**	1	
5. Flow	0.202**	0.163**	0.222**	0.229**	1

* p<0.05, ** p<0.01, *** p<0.001

4.3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 1, 2, 3을 검증하기 위해 AI의 3가지 속성인 정확성, 유용성, 사용 용이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심리적 자본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검증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sychological Capital

Independent Variables	B	SE	S.B	t	p
Constant	0.048	0.033		1.466	
Correctness	0.741	0.022	0.747	33.894	0.000
Usefulness	0.256	0.040	0.262	6.445	0.000
Easy of Use	0.562	0.040	0.518	12.636	0.000
F:3865.169, P: 0.000, R ² : 0.9770					

AI의 특성변수인 정확성, 유용성, 편리성이 모두 심리적 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리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AI의 특성변수 중 정확성에 대한 표준화 β값이 0.747로 유용성(0.262), 사용 용이성(0.518)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Bedard et al.(2012)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회계 정보의 정확성이 심리적 자본인 인간의 감정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Simple Regression Analysis: flow

Independent Variables	B	SE	S.B	t	p
Constant	2.853	0.385		7.401	
Psychological Capital	0.287	0.073	0.231	3.942	0.000
F:3865.169, P: 0.000, R ² : 0.977					

심리적 자본은 플로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4를 검증한 결과, 표준화 β값이 0.231(t=3.942)로 나타나 심리적 자본은 플로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설4(<Table 5>)는 채택되었다. 이는 Abuhamdeh와 Csikszentmihai(2012)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신이 결정하는 학습에 대한 내적인 동기과 학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요인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심리적 자본은 AI의 특성변수가 플로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매개작용을 할 것이라는 가설 5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프로그램인 SPSS 22.0을 이용하여 3단계 회귀분석을 하였다. 심리적 자본의 매개역할을 검증하기 위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는 AI특성변수와 심리적 자본대하여 회귀분석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AI교육 특성변수와 플로워에 대

하여 회귀분석 한 후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AI교육 특성 변수, 심리적 자본과 플로워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의 분석결과 독립변수의 표준화 β가 두 번째 단계의 표준화 β보다 적으면 매개변수의 효과가 검증되는 것이다. 동시에 심리적 자본이 통제되었을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면 완전매개, 유의하면 부분매개라고 판단된다[20,28].

<Table 6>에 제시된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매개효과인 심리적 자본을 분석한 결과 정확성, 유용성, 사용 용이성 모두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 중 정확성과 유용성은 부분매개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사용 용이성은 완전매개 효과가 나타나 가설 5는 채택되었다.

<Table 6> Mediating effect of psycholocial Capital between AI characteristics and flow (N=282)

M.V	IV	Dependent variable			Mediating Effect
		step	β	t	
P C	Correctness	1	0.978***	79.297	Partial Effect
		2	0.725***	2.585	
		3D	0.184***	2.809	
		3M	0.202***	2.585	
	Usefulness	1	0.916***	38.108	Partial Effect
		2	0.163***	2.769	
		3ID	0.286*	1.986	
		3M	0.491***	3.408	
	Easy of Use	1	0.938**	45.235	Totally Effect
		2	0.222***	3.813	
		3ID	0.063	0.377	
		3M	0.211*	2.609	

* p<0.05, ** p<0.01, *** p<0.001

5. 결론

현재 외부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융복합이 강조되고 있는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에서 본 연구는 AI의 특성이 심리적 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자본은 플로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AI의 특성변수와 플로워의 관계에서 심리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 활용된 도구는 SPSS 22.0 프로그램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I교육 특성변수가 심리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정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심리적 자본과 플로워의 관계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자본인 자기효능감, 복원력, 희망, 낙관주의가 플로워에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AI교육 특성변수와 플로워 사이에 심리적 자본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I교육 특성변수 중 정확성은 심리적 자본과 플로워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며, 심리적 자본은 정확성과 플로워 사이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성변수 중 유용성은 심리적 자본과 플로워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로워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자본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AI교육 특성변수 중 사용 용이성이 심리적 자본과 플로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용 용이성과 플로워의 관계에서 심리적 자본이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 용이성이 높아도 심리적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플로워에도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AI의 선행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심리적 자본을 활용하여 플로워에 미치는 관계를 규명하였다. 둘째, 심리적 자본에서 자기효능감, 복원력, 희망, 낙관주의는 AI의 특성변수 중에서도 정확성과 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정보의 정확성은 심리적 만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스템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심리적 자본은 AI교육 특성변수 중 사용 용이성과 플로워에 완전매개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회계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용이한 시스템 개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정보를 사용하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과 AI를 사용한 대상과 사용하지 않은 대상과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나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회계정보를 사용하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표본 수집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AI사용여부에 대한 차이분석을 하여 연구를 보완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 [1] J. A. G. .M. Van Dijk, “The Evolution of the Digital divide: The ?Digital Divide turns to Inequality of Skills and Usage”. Digital Enlightenment Yearbook, J. Bus et al(Eds.), pp. 57-75, 2012.
- [2] S. Livingstone and E. Helsper, “Balancing Opportunities and Risks in Teenagers’ Use of the Internet: The Role of Online Skills and Internet Self-efficacy. New Media and Society”, Vol. 12, No. 2, pp. 309-329, 2010.
- [3] H. Seven, S. Jeol and B. Robert, “More accounting theory or more information technology”. Accounting Education Journal, pp. 1-19, 2010.
- [4] W. S. Albrecht and J. S. Robert, “Accounting Education: Charting the course through a perilous future, Accounting Education Series”, Vol. 16, pp. 1-72, 2000.
- [5] S. N. Lee, “A Study on the information technique and accounting education. Korean association of Tax and Accounting”, Vol. 15, pp. 233-248, 2004.
- [6] F. Luthans,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Developing and Managing Psychological Strengths”.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Vol. 16, No. 1, pp. 57-75, 2002.
- [7] J. Kahne and S. Sporte, “Develpoing Citizenship: The Impact of Civic Learning Opportunities on Students’ Commitment to Civic Participatio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 45 No. 3, pp. 738-766, 2008.
- [8] J. Nelson, “Transforma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Academic Research Library”, Vol. 53, No. 5, pp. 83-87, 2009.
- [9] B. W. Jung, H. Shawn and S. J. Park, “A Study on the Accounting Education System and Improvement in the Cyber Environment,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Vol. 35, pp. 261-292, 2011.
- [10] V. Vevkatesh and F.D. Davis, “A Theoretical Extension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ur Longitudinal Field Studies, Management science”, Vol. 46, pp. 186-204, 2000.
- [11] J. C. Bedard, S. G. Sutton, V. Arnold and J. Philips, “Enhancing and structuring the MD & A to aid investors when using interactive dat”a.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26, No. 2, pp. 167-188, 2012.
- [12] F. Luthans,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Developing and managing psychological strengths.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Vol. 16, No. 1, pp. 57-72, 2002.
- [13] P. Y. Logan, “Crafting an Undergraduate Information Security Emphasis within Information Technology.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ducation”, Vol. 13, No. 3, pp. 177-182, 2002.
- [14] M. A. Wright, “The Need for Information Security Education. Computer Fraud and Security”, Issue 8, pp. 14-17, 1998.
- [15] S. Abuhamdeh and M. Csikszentmihalyi, “Attentional involvement and intrinsic motivation. Motivation and Emotion”, Vol. 36, No. 3, pp. 257-267, 2012.
- [16] A. Bandura, “Health promotion by social cognitive means. Health education and Behavior”, Vol. 31, No. 2, pp.143-164, 2015.
- [17] S. N. Lee, “A Study on the Influencing usage Intention of AT Certification program using WBI in the Digital Convergence Environ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7, pp. 109-116, 2015.
- [18] Y. S. Park and J. H. Kim, Daily Hassles, “Self-Efficacy and Stress Responses of Adult Learners of Distance Education in Digital Convergence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9, pp. 397-407, 2015.
- [19] F. Luthans, S. M. Norman, B. J. Avolio and J. B. Avey,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Supportive Organizational Climate -Employee Performance Relationship.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 29, No. 2, pp. 219-238, 2008.
- [20]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1182, 1986.
- [21] F. Walumbwa, F. Luthans, J. B. Avey and A. Oke,

- “The Mediating Role of Collec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Trus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 32, pp. 4-24, 2011.
- [22] Woo-Jin Son, “The Empirical Study on Interrelationship between Strategy, MCS, Corporate’s Performance and Role of Controlle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303-314, 2015.
- [23] Chang Jun Jeong, “A Study on the Advertising Creative Based on the Technology Converg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235-241, 2015.
- [24] Jiyeun Chang, “Convergence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of SNS Affecting Relationship Development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213-219, 2015.
- [25] Sook-Jeong Lee, Ye Jong Le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3, No. 2, pp. 27-32, 2012.
- [26] Ji won Lee, Kyung-hee Kang,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depression and stress of students according to school syste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4, pp. 69-74, 2014.
- [27] Eun-Hee Park, Hye-Suk Kim, Ja-Ok Kim, “The Effect of Convergence Action Learning techniques in Simulation Clas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241-248, 2015.
- [28] Shin-Hyeong Choi, Kun-Hee Han, “A Study on Informatization in the Machinery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2, No. 2, pp. 1-5, 2011.
- [29] Young-Jun Kim, “Convergence of Business Information System Process using Knowledge-based Method”,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65-71, 2015.
- [30] Sung-Uk Yoon, Youn-Suk Kwon, “Relationship between test anxiety and self-esteem in partial health related department convergenc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91-98, 2015.
- [31] R. Ryeo, “A Study on the Effects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Characteristics on AI Performance”. Ph.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2011.
- [32] J. B. Funk, T. Pasold and J. Baumgardner, “How children experience playing gam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tertainment, Pittsburgh, PA, 2003.
- [33] J. B. Kim. “A Study on the Optimization of Public Convergent Space for Social Networking in the Digital Convergence Era”. Ph.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ersity, 2012.
- [34] J. F. Hair, W. C. Black, B. J. Babin, R. E. Anderson and R. L. Tatham, “Multivariate data analysis”,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2006.

이 신 남(Lee, Shin Nam)



- 1992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1998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2002년 4월 ~ 현재 : 협성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 관심분야 : AI, 관리회계
- E-Mail : lsn119@paran.com